

헛디디면 끝...막판 돌발 변수 경계령

여야, 북풍 예의 주시...말실수 할까 '조심 조심'

박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문재인 호남 방문 촉각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판 돌발 변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선거판에서 전통적 돌발 변수는 안보 이슈, 이른바 북풍(北風)이다. 최근 들어선 북풍의 '악발'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

가가 나오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바 있다.

최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GPS 전파 교란과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

을 이어온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대양절 전후에 추가 핵실험이나 국지적 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주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경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이 안보 이슈에 발목을 잡힌 만큼 이번에도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북풍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선 막판 국면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막말'이다. 특히 야권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는 '노인평화' 발언이,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이 치명적 약재로 작용했던 만큼 말 실수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도 터진다는 주진형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불러 구설에 올랐다.

이밖에도 2012년 18대 대선의 맞수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도 주요한 막판 변수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한다. 혼전을 거듭하는 총선 판세 속에 '선거의 여왕' 타이틀을 가진 박 대통령의 귀국 후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과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터민주와 국민의당이 텃밭인 호남을 두고 정면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 퍼져 있는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고려하면 문 전 대표의 방문이 터민주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방문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무릎 꿇은 새누리 새누리당 대구지역 20대 총선 후보들이 6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유세 동선도 전략적으로

새누리 '불모지' 전북·충남

터민주 '박빙 승부처' 서울

국민의당, 영남 중도층 공략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둔 6일 여야는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각 정당의 '산토끼 표심' 잡기에 매진했다. 선거운동 기간도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여야 각 정당은 지도부의 유세 동선도 전체 판세를 감안하며 전략적으로 짜서 움직였다.

먼저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오전에는 전북, 오후에는 충남에서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지원했다.

김 대표는 '여당 불모지'로 여겨지는 전북에서 한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전주들의

정운천 후보를 위해 한 표를 호소한 뒤 충남으로 넘어와 총 7개 지역구를 거의 20분 단위로 쪼개가며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경향·박빙 승부처가 물려 있는 서울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우선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인 뒤 서울 강북·갑·을·중·성동갑, 중랑 갑·을, 강동 갑·을 등지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다. 호남 의석만 노린다는 시선을 벗어 '전국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당

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방문해 최석민(북구갑)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 울주군과 경남 양산군을 거쳐 경남 창원, 또 자신의 고향인 부산까지 넘어가 소속 후보들을 위해 한 표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합뉴스

4·13 총선 현장

광주 산별노조 대표 16명 "박주선 지지"



한국노총 광주 산별노조 대표가 16명이 6일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 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하희섭 한국노총 광주본부 센터장은 "뜻심 있게 일자리 정책을 얘기해 온 박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약속했던 정책과제를 100% 달성되지는 못했다"면서 "20대 국회에 가서 오를 정책과제들을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등 500인 김동철 지지 선언



광주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노동계·학계·종교계 등 500인이 6일 국민의당 김동철 광주 광산 갑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김 후보는 4·13 총선 이후 야권재편과 정권교체의 책임자"라며 "지난 의정활동 기간동안 열정과 집념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고 앞으로 해야 할 일 많은 광주를 위해서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김동철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동티모르 정부 감사 서신 받아



국민의당 최경환 광주 북구를 후보는 6일 광주NGO센터 관계자를 통해 동티모르 공화국 정부를 대신해 노동고용부 장관(알리디 오 슈메네스 다 코스파)의 감사 서신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 서신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방문 동안 동티모르-대한민국간 협력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시고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형일 전 의원, 이병훈 지지 선언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 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 후보는 낙후된 지역을 부활시킬 책임자이자 구대정치를 해소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특히 "구도심 활성화와 광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진두지휘한 문화경제전문가"라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후보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나경채 "서민경제 시대 열겠다"



정의당 나경채 광주 광산 갑 후보는 6일 "그간 기업이 잘 살아야한다며 규제완화, 세제해택을 퍼줬지만 그 결과는 서민들에게 성장 없는 성장이었다"며 "이제는 서민경제의 시대, 정의로운 경제의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정치인들은 그간 소위 낙수효과와 신화로 대기업 특혜, 대기업 퍼주기 정책을 폈었다"며 "더민주당 윤정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복합소광물이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양향자 삼성차 유치 공약은 거짓"



정의당 강은미 광주 서구를 후보는 6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 후보는 "양 후보가 최근 일자리 2만개 창출에 대한 특기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해당공약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며 "터민주와 양 후보의 공약이 거짓공약임이 곧바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형욱 "3개군 합병...준광역자치체 전환"



국민의당 강형욱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는 6일 3대 대표공약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임기동안 주민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면서 "영광·함평·장성 3개군을 합병, 중규모의 준 광역자치체로 전환해 광대역 자치행정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특히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의 산실로 육성하는 한편, FTA 등 무역환경의 급변으로 기로에 선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 전현직 시·도의원 손금주 지지선언



나주 전현직 시·도의원 등 50명이 6일 국민의당 손금주 나주·화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필소 결의대회에서 "지역이 다양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면서 "손 후보는 판사 재직 당시 깨끗한 인물로, 이는 모두가 인정할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손 후보의 합리적 자세는 현 시대에 맞는 리더의 모습이다. 지역구에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마음의 행복을 찾아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홍진태 "문화전당 활성화 정책플랫폼 구성"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가진 거리유세에서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전 문가와 지역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정책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어 "동구가 발전해 나가려면 문화전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광주시 문화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입안에 참여해 그 누구보다도 문화전당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쏟아 왔다"고 강조했다.

양혜령 '청년 주체 젊은 동구' 선언



무소속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6일 청년이 주체되는 젊은 동구로 바꾸기 위해선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컨텐츠, 전통시장, 의료관광 등 지역특성을 접목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일자리 아 이템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특히 "도시 재생사업과 남광주시장·대인시장 야시장 등을 통해 청년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서울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상가 & 제척부지 NPL매각
상가 분양가 및 NPL매각 채권최고액 330억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차임 1억5천만원 가능
- 대출금 이자를 뺀 월 수익 약 1억 가능

제척부지(보상가) NPL매각 채권최고액 270억

- 하월곡 제1구역 재건축시 보상가격 약 250억~270억가능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한화 컨소시엄)완료
- 상가, 제척부지의 NPL 매각 금액은 상담 시 공개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3천 ~ 9억8천만원)
- 대출받지 않고 전세 놓으면 1억 ~ 2억원으로 소유
- 현재 즉시입주 가능(선착순 동 호수 지정)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